

청엽구청역

최근 수정 시각: 2025-09-24 14:33:02

1. 개요 역구(효빈)의 철도역 1988년 개업한 철도역 효빈 도시철도 1호선 효빈 도시철도 6호선
2. 역 정보 도 프로젝트
3. 역 주변 정보
3.1. 출구 정보
4. 일평균 이용객
5. 승강장
6. 연계 교통
7. 기타

청엽구청역



곽암해수욕장·창선 방면 사노 ← 1.14 km	1 호선 탄성지선 (113-6)	승남해수욕장 방면 아논타워 0.98 km →
팔조 방면 효빈남부시외 버스터미널 ← 1.19 km	3 호선 (305)	효빈국제공항방면 청엽 0.87 km →

역명 표기

1 호선	청엽구청 Cheongyeop-gu Office 青葉區廳/ 清烨区厅/ チヨンヨブグチョン
3 호선	

주소

효빈광역시 청엽구 청엽동 9-3 지하

관리역

청엽구청관리역

운영 기관

1 호선	효빈교통공사
3 호선	

개업일

1 호선	1988년 2월 9일
3 호선	1994년 2월 9일

역사 구조

지하 3 층 (3 호선)

지하 2 층 (1 호선)

승강장 구조

2 면 3 선 상대식 승강장 (1 호선)

복선 섬식 승강장 (2 호선)

1. 개요

효빈 도시철도 1호선 113-6번 및 2호선 305번, 효빈광역시 청엽구 청엽동 9-3지하 소재.

2. 역 정보

3. 역 주변 정보

3.1. 출구 정보

청엽구청역 출구 정보

1	청엽구청
2	청엽구청오거리
3	효빈청엽경찰서
4	송엽상업고, 청엽 5 동행정복지센터
5	왕교초
6	모카고, 청엽 6 동행정복지센터

4. 일평균 이용객

연도	①	③	총합	비고
2020년	20,616 명	25,834 명	46,450 명	
2021년	20,826 명	25,675 명	46,501 명	
2022년	26,178 명	32,051 명	58,229 명	
2023년	27,020 명	33,999 명	61,019 명	
2024년	27,238 명	34,932 명	62,170 명	

5. 승강장



6. 연계 교통

•

7. 기타

7.1. 역명과 관련된 여담: 아오바 모카 성지순례지 '青葉(청엽)'

청엽역(3 호선)과 청엽구청역(1 호선/3 호선)은 효빈광역시 청엽구 청엽동에 위치하며, 청엽구의 핵심 환승 거점이다. 이 역명인 **청엽(青葉)**의 한자는 일본 미디어 믹스 프로젝트 뱅드림!의 캐릭터 **아오바 모카(青葉モカ)**의 성(姓)인 **青葉(아오바)**와 한자가 완벽하게 동일하다.

- 문화적 연결: 아오바 모카는 빵과 베이커리를 극도로 좋아하는 것으로 유명하며, 청엽구청역 일대는 대형 베이커리 및 카페 거리가 조성되어 있어, 역 이름의 동일성과 함께 **'모카의 베이커리 성지(빵지순례)'**로 팬들에게 알려져 있다.
- 팬들은 이 역에서 모카 굿즈와 함께 빵을 들고 인증 사진을 남기며 **'유쾌한 연대'**를 상징하고, 이는 청엽구의 상업 활성화와 문화적 포용력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.

7.2. 2017년 윤대환의 '빵 테러' 굴욕 사건

이 역은 고립주의자 윤대환 (전 효빈시장, 선거법 위반 및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형을 만기 출소한 직후)이 일으킨 초유의 '빵 테러' 굴욕 사건의 현장이다.

- 사건 경위: 2017년 출소 직후, 윤대환은 자신의 몰락 원인이 **'외부 문화와의 연결'**이라고 판단하여, 그 상징인 청엽역 및 청엽구청역 환승 구역 일대에서 **'빵지순례'**를 하던 모카 팬들에게 시비를 걸었다. 윤대환은 "도시 인프라를 하찮은 빵 쪼가리로 더럽힌다!"고 폭언하며 혐오 시위를 시도했다.
- '빵 테러'와 윤대환의 굴욕: 이에 분노한 팬들은 모카의 상징인 빵 모양 굿즈와 **실제 빵(모카빵, 메론빵 등)**을 윤대환에게 향해 던지며 **"빵이나 드시고 정신 차리라!"**고 외쳤다. 윤대환은 빵에 맞아 대차게 당하며 팬들의 유쾌하고 단호한 문화적 연대 앞에서 무참히 패배하고 현장에서 도주했다.
- 모카 성우의 경악: 이 사건은 일본에 전해져, 아오바 모카의 성우가 라디오 방송에서 경악을 표했다. 성우는 "저, 세상에! 빵도 모자라 성지순례에도 시비를 걸다니! 그런 분들에게는 따뜻한 빵 한 조각이 줄 수 있는 행복과 포용을 가르쳐야 한다"며 윤대환의 혐오를 비판했다. 이 발언은 윤대환의 행위가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되었음을 상징한다.

7.3. 사건에 대한 에브리타임 및 A의 형 반응

윤대환이 정역 만기 출소 직후 빵에 맞아 쫓겨난 사건은 효賓대학교 에브리타임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.

- **효빈대 에타 반응:** 학생들은 **'살인미수 정역을 살고 나온 전 시장의 첫 행보가 빵에 맞고 도주하는 굴욕'**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조롱했다. "고립주의는 빵 한 조각이 상징하는 평화와 연대를 이길 수 없다", "청엽은 **'푸른 잎(青葉)'**처럼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데, 윤대환은 영원히 썩은 뿌리에 머물 것" 등의 반응이 주를 이뤘다.
- **A의 형의 짜질한 반박:** 윤대환의 아들이자 A 씨의 형(같은 고립주의 성향)은 익명으로 답글을 달아 시위를 옹호했다. **A의 형 (짜질한 답글):** "아버지(윤대환)는 공공 교통망을 더럽히는 불순한 문화 자본에 맞서 싸운 것이다! 빵을 무기로 사용하는 오타쿠들의 폭력이야말로 비난받아야 한다! 우리는 청엽의 순수성을 끝까지 지킬 것이다!"
- **A의 형의 이 짜질한 반박은 **'윤대환 일가의 혐오 대물림'**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기록되었으며, 윤대환의 복귀가 아닌 추가적인 굴욕만을 가져온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.**